

2019년 7월 26일



## 별거벗음의 수치

코디 아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 그들은 에덴동산에서 별거벗었으나(ערוּמוֹם - *아루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창 2:25).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 반역한 후에 눈이 떠진 그들은 스스로 별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창 3장). 별거벗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들에게는 두려움과 수치가 들어왔고, 이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 숨었던 것입니다(창 3:7-10).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무화과 잎을 가지고 별거벗은 것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재간은 우리 죄를 완전히 가릴 수 있을 만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으로 그들을 가려주시려 동물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들 대신 동물의 생명을 취한 것입니다(창 3:21).

## 별거벗은 것이 무슨 큰 일인가?

타락하기 전에는 사람이 별거벗은 것은 선하고, 순수한 것이었죠.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타락 후에는 별거벗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수치스럽고 가려야 하는 것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별거벗음이라는 단어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νεγν*(*에르바*)인데, 성기를 드러내는 “부정한 것”, 금지된 상대와 성적 접촉을 하는 것, 우리의 죄된 행동에 수반되는 모든 수치를 말합니다.

노아의 아들들은 노아가 술 취하여 별거벗었던 것을 가려주었습니다(**창 9:20-23**). 제사장들은 하체를 드러내서는 안 되었습니다(**출 20:26**). 선지자들은 그들이 다른 신을 섬김으로 그들의 별거벗은 것이 이웃 나라들에 드러났다고 이스라엘에 말했습니다(**겔 16장**). 예슈아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들의 별거벗은 수치가 드러나지 않도록 당신께로부터 흰옷을 사라고 경고하셨습니다(**계 3:18**).

성경 전반에 걸쳐 별거벗었다는 것의 문맥과 의미가 다양하지만(40회 이상 언급), 육체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별거벗음은 수치라는 것이 거듭되는 요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울로 스스로의 별거벗은 몸을 볼 때 경멸과 당혹스러움으로 보아야 한다는 뜻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알몸을 지으셨고 사랑하십니다. 문제는 누가 우리의 알몸을 보도록 허락 받았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별거벗은 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유일한 장소는 남자와 여자의 결혼관계 가운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탈의실이나 샤워실에서 동성끼리 별거벗은 경우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정욕을 자극하거나 양심에 거리낌이

된다면 피해야만 합니다.)

### 악을 선하다 하는 것

우리가 벌거벗는 것이 오직 배우자에게만 허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런 사상을 완전히 뒤바꿔 나체를 높이고 숭양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포르노 산업에서부터 누드 비치(나체 해변)에 이르기까지 인체를 완전히 노출하는 것은 점점 더 일반적이고 괜찮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예슈아의 제자들인 우리는 이런 속임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거기에 맞춰야 합니다. 우리는 예슈아께서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을 미워해야 합니다. 혼외 성교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포르노는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욕에 사로잡혀 혐오스러운 행동을 버리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은 여러분을 순결을 위해 싸우고자 하는 열심에 이르게 하기보다, 무기력과 타협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 미워해야 한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스스로 “이건 그냥 알몸일 뿐이야, 뭐가 대수야?”라고 말하며 제 마음에 수치스러운 영상들을 채우며 세월을 낭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두려움을 마주한 후 저는 중독에서 벗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수치스럽다 칭하신 것에 대한 거룩한 미움의 여정은 십여 년 전에 시작되었고 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친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음행을 피할” 수 있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고전 6:18)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그것을 충분히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수치에 익숙해지는 것은 우리 마음을 무뎠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관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좌절감을 느끼거나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때 일시적인 감정출구로 뒷문을 열어놓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숨겨진 죄를 드러내실 시간과 방법을 조율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경험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더 생기도록 열심히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런 다음 변하고 싶은 갈망이 충만해졌을 때, 책임을 떠맡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 싸움을 이기도록 돕는 여러 가지 자료를 사용하십시오.



## 지적인 지혜

아세르 인트레이터는 자신의 지식으로 성경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고무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지적으로 냉철한 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여기](#)를 클릭하세요.